

구역부에서는 사랑방을 통하여 벤틀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윤회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사랑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간될 소식지에 실릴 교구/사랑방 소식이나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고는 구역부 메일함 혹은 이메일 (SMALLGROUP@BETHEL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랑방 지역: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5 개의 지역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앙) 안에 20 개의 교구가 있으며, 교구안에 4 가정에서 20 가정으로 꾸려진 60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부 사랑방 소식지팀
 담당 목사: 조명재



백신종 담임 목사님 컬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씨앗을 잔뜩 머금은 해바라기 발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안겨주는 기쁨이 됩니다. 해바라기가 이렇처럼 늘 해를 따라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닮은 모습과 한 방향으로 정렬된 모습은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여름 벤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바라기와 같이 "주바라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좀더 닮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는 버림의 삶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에 풍성한 씨를 머금은 해바라기와 같이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길 기도해 봅니다. 또한 벤틀의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사랑방이 여름에 모임을 갖지 않고 쉬기 때문에 혹시나 영적으로 나태해 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모여 나누는 교제와 나눔을 열정적으로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벤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혹시 사랑방이 자체 방학을 해도 사랑방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작은 모임에서 나누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96 세가 되시는 외할머니 건강이 많이 악화 되셔서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한번 다녀가라"는 부모님의 부탁도 있으셨고, 그간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구입하고 싶었던 목회서적을 구입할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곧 목회"라고 믿기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1 주일간 기도원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프라미스센터 건축을 준비하는 21 일 특새 교재집필과 설교준비로 인해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못해서 휴가기간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7 월에는 사랑방 사역자 훈련모임을 갖지 않기로 해서, 사랑방 사역자님들은 8 월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8 월부터는 존 맥스웰의 "지도력 개발" 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사역자 훈련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방을 섬기는 소그룹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도력을 개발하고 행사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찬양 축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벧엘교회 창립 38 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교구별 찬양 축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게
된 교구찬양의 모습들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곳곳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에도, 춤추는 몸짓에도, 터져



나오는 웃음 속에도 - 우리의 장막 속에 흘러 넘쳐났습니다.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하는 찬양 속에서, 아! 하나님의
집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였고, 그런 느낌을 잊고 지낸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교구찬양은 우리 벧엘의 오래된 전통중 하나였고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과거 교구찬양 대회를 할 때마다, 마지막 한 주간 교실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교실 문마다 교구 이름 붙여 놓고, 심지어 교구 식구들이 돌아가며 망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실을 구하지 못한 교구는 밖으로 나가서 더운 벧엘 동산에서 땀흘리며 당일치기 마지막 연습하던 모습도 기억
하십니까? 지금은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권사님들께서 검은 머리에 팔팔하시던 시절, 별의별 꽃단장 다하고 무대 위에 서시던 것
기억하십니까? --- 저는 아직도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벧엘의 소중한 기억이기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제가 섬기는 교구도 몇 차례의 연습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가 막힌 합창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신나게
연습했습니다. 때로 혼돈스럽기도 했고, 제대로 될까?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신나게 목이 쉬도록 연습하며 또 교구 식구들이
함께 의논해 가며 즐겁게 준비하였습니다. 막상 대회 날 연습한 것과는 다르게, 여기저기 와장창 틀리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함께 나누었던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그 자리에도 충만하였기에, 틀린 것들조차도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바로
이곳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인 것으로 인해 감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더욱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교구 찬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음악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재미있고 재치있는 사회를
이끌어주신 이용민 목사님,
심사위원 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목사님들과 지휘자님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박승만 음악부 담당장로

노아의 방주 여행 기행문

벧엘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봄학기 행사로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로 2 박 3 일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10
시간의 버스 여행이 부담은 되었으나 성경속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그 웅장한 모습에 기대와 호기심이 생겨, 오하이오와
켄터키를 향한 45 명의 단체여행이 시작되었다.

5 월 22 일 교회에서 아침 6 시에 출발해서 8 시간 후, 먼저 오하이오주 작은 시골에 위치한 델라웨어 제일 장로교회에 도착했다.

28 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최초 의료선교사로 가신 알렌 (Horace N Allen, 1858-1932) 선교사가 다녔던 이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알렌 선교사의 유품들이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으며 태극기도 꽃혀 있어서 마치 한국의 어느 교회를 견학 온 기분이었다. 200 명 정도 수용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제중원이란 (세브란스 병원 전신 - 이씨 조선 말기 고종황제 때) 서양식 병원을 짓는데, 그당시 \$2000 을 모금해서 씨앗이 되어 (seed money) 현재의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온 몸에 전율을 느끼는 감동을 받았으며 가져갔던 한국책 40 권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즉석에서 모금한 현금 \$500 도 전달했다



그 다음날 2 시간의 버스 여행중 목사님의 노아의 방주와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마침내 목적지 노아의 방주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 한가운데 설치된 방주는 그 크기와 규모가 참으로 굉장했다. 길이 155 m x 높이 26 미터 3 층 높이의 초대형 배를 보면서 노아 혼자 100 년을 걸려서 만든 이 엄청난 배를 일년 반만에 만들었다니 놀랄 따름이다. 목사님의 자상한 설명과 성경공부가 우리의 감동을 더해주었다. 방주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동물과 식물, 곡식 등을 가득 채워놓은 생생한 모습에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고 느끼면서 저절로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노아의 카페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 창조 박물관에 들러 사실적인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성경이야기를 관람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타락 후의 아담 가족들, 사악한 뱀과 수많은 곤충, 새와 나비 등등 마치 에덴동산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돌아오는 길에는 정송석 장로님의 구수한 여담과 여러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영원하리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한상구 장로

사랑방 및 사랑방장 소개

(밑의 글들은 구역부의 질문에 보내주신 답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북서 4 교구 1 사랑방 - 윤옥현 사랑방장

저희 사랑방은 16 가정으로 구성되었으나, 그중 6 가정은 사업 또는 가정형편으로 자주 참석을 못하십니다. 평균연령이 70 이 넘고, 모이면 헤어지기 아쉬운 정도로 좋은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초창기 1980 년 때부터 계속 북서 4 교구 소속이었으며, 현재 약 6 번째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역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번대로 도움(음식배달, 차량 제공)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나누면서 제일 기뻐합니다. 사랑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젊고 의욕적이며 교회직분을 받으신 분이 맡아 각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이 꾸준하지 못하신 가정도 계속하여 전화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지요. 사랑방모임이 서로 친하게 되는 좋은 점이 있으나, 넓게 전 교인과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고 전 교인이 함께 참석하는 좋은 program 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북동 2 교구 1 사랑방 – 차승훈 사랑방장

저는 현재 교구에 2003년부터 속해 있으며, 12년 동안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방장 전과 후가 다른점이 있다면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각각의 사랑방 식구를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도와 관심, 주일예배 후 친교, 야외 사랑방 모임과 성탄절 특별 모임(선물교환과 게임)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방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사랑방 식구를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할 때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지 못할 때입니다. 가장 기뻐던 일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가정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와 사랑방 식구가 (저희 사랑방은 학교 연구원이 많은데)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입니다. 다음 사랑방장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항상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거나 언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각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 4 교구 3 사랑방 – 정옥이 사랑방장

중앙 4 교구(교구장 김세웅 장로님)는 3개의 사랑방이 있는데, 합동 교구 모임으로 한달에 한번 약 30명이 모여, 저희 3 사랑방은 따로 또 한달에 한번씩 8명이 모입니다. 저는 사랑방이 생긴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사랑방원을 잘 알고 먼저 섬기는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활성화되기 위해 1주일에 한번씩 심방 또는 전화 심방을 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 개개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게 잘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다음 사랑방장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사랑방 가족을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랑방에 속해 있지 않으나 사랑방에 속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밑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역부 메일함에 넣어주시거나 이메일을 작성하셔서 smallgroup@bethelchurch.org 으로 보내주시면 구역부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소속 요청서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남 / 여 나이: _____

배우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나이: _____

주소 (Address) : _____

전화 번호 (Telephone): _____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_____